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사랑합니다 (I Love You)

lawhwshin on June 22, 2011

한인 이혼 가정을 매일 접하며 그 속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는 그 한 마디가 너무도 아쉬울 때가, 절실하게 소중할 때가 많다.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40 대 이상의 세대에게는, '사랑합니다.'라는 간단한 한국말이 영어의 그 어떤 단어보다도 더 어렵고 생소하다. 더군다나 '사랑합니다.'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입 밖으로 꺼내 말하는 것이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 돈 버는 것보다, 자식 대학 입시 준비 시키는 것 보다 더 힘들다. 한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 지도 안 하는데, 내가 왜?'가 되 버렸고,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가정법 변호사를 찾아 올 일이 생기고 만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평생 안하고 아니 못하고 살아서 노년에 이혼까지 갈 뻔 했으나,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대신 할 수 없는 아내에 대한 깊고도 진한 사랑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음을 뒤늦게 고백하고, 아내를 이혼 법정에서 되찾아 온 의뢰인 Q 씨가 있었다.

Q 씨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바라보는 곧고 말 없는 성격의 아저씨였다. 그는 손에 아내로부터 송달 받은 이혼 소장을 꼭 쥐고 반쯤 정신이 나가서 변호사를 찾아왔다.

늘 하듯이 이혼 소장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이혼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데, '집사람이 많이 아파요,'라며 내 말을 자르고 고개를 떨구고 만다. Q 씨는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며 '집사람 꼭 찾아서 데려와야 해요. 그 사람 갈 곳도 없어요.' 만 연발한다. 아내가 집을 나가 갈 만한 곳을 다 적은 종이쪽지를 건네주며, '제가 전화하니 다들 모른대요. 집사람 꼭 찾아 주세요. 데려와야 해요.'를 또 반복.

사람 찾아주는 흥신소도 아니고, 실종자 신고 받는 동네 파출소도 아니지만, 일단 이혼 소장을 송달 받고 찾아 왔으니 소장을 검토했다. 아내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여기서 잠깐,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을 살피면, 이혼 소송 전반에 있어 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에 임하거나, 혹은 변호사 없이 자신이 직접 변호, 변론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 하는 경우, 법적 용어로 In Pro Per 혹은 Self Represented Party 라 한다. 실제로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변호사 여럿을 쓰고도 소송에서 계속 죽을 쓰고 돈은 다 떨어져 결국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는 In Pro Per 들이 종종 있다.

이혼 소송에 있어, 양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변호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변호사와만 소송의 제반 안건에 관해 토의,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는 그의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접촉, 혹은 의사소통도 피하여야 하며 해서는 안 된다. 단,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을 직접 변호할 경우 (In Pro Per)에 국한하여,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와 소송 안건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Q 씨의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In Pro Per 로 이혼 소장을 넣은 상태라, 나는 Q 씨가 적어 준 아내의 친지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취하여 그녀를 찾기에 나섰다. 전화에 전화를 거듭해 나는 겨우 Q 씨의 아내와 통화하기에 이르렀다. 아내는 집에서 정말 먼 곳으로 가 있었다.

나는 남편의 변호사라 소개한 후, Q 씨의 아내가 여전히 In Pro Per 로 소송에 임함을 확인한 후,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니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남편의 입장을 전달했다. 덧붙여 남편이 아내의 건강 상태를 심히 걱정하드라는 얘기도 빼 놓지 않았다.

이에, Q 씨의 아내가 조용하고 차분히 답하기를, '변호사님이 그이를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그이는 평생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나란 존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보냈으니, 내가 이렇게 병들어 그 사람 곁에 구차하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더 외롭고 비참해지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요.'

나는 남편의 변호사로서 정말 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잠시 만난 것 이외에는 Q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내 어찌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의 말이 다 틀리다고 반박할 수 있으랴. 아내의 외로움의 절규가 나를 힘들게 했다.

Q 씨를 만나 아내와 나눈 얘기를 한 마디도 빠지 않고 전했다. Q 씨는 아내의 행방을 찾았다는 그 순간부터 눈물을 참지 못 하더니 아내의 외로움의 호소에, 또 그녀의 이혼에 대한 완강한 입장에, 그 곳곳하고 점잖은 아저씨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통곡하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집사람은 나 없어도 살지만, 나는 집사람 없이 못 살아요. 내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리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아저씨는 해질녘 집 나간 엄마를 사방으로 찾아 헤매는 어린 아이같이 엉엉 울었다.

Q 씨가 평생 처음 한 아내 향한 '사랑합니다.' 고백을 나는 그 어떤 치열한 법정 재판에 임할 때보다도 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그의 아내에게 전달했고 Q 씨를 변호했다.

Q 씨의 '사랑합니다.'는 아내의 응어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고 Q 씨는 아내를 이혼 법정에서 무사히 그의 곁으로 되찾아 왔다.

아무리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정서상, 문화상, 성격상 안 맞아 어렵다 해도 소중한
나의 사랑을 잃는 것과 비교되랴. 또, 꼭 말로 하는 '사랑합니다'가 아니어도, 매일 밖에서
깨지고 터져도 다음날이면 투덜거리지 않고 또 일어나 일 나가는 것도, 또 하얀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짓는 것도, 모두 마음속에서만 메아리치는 '사랑합니다'가 아닐는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신혜원이 소유함을 명시합니다.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